논어 17편 양화 6장 · 원문·풀이

子張問「仁」於孔子。孔子曰：「能行五者於天下，爲仁矣。」「請問之？」曰：「恭、寬、信、敏、惠。恭則不侮，寬則得眾，信則人任焉，敏則有功，惠則足以使人。」

독음 · 자장문인어공자 공자왈 능행오자어천하 위인의 청문지 왈 공관신민혜 공즉불모 관즉득중 신즉인임언 민즉유공 혜즉족이사인

쉬운 풀이(요약) · 공손함·너그러움·믿음·민첩함·은혜를 실천하면 인에 가까워진다. 각각 모욕을 피하고 사람을 얻으며 신뢰와 성과와 협력을 이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張 베풀 장 장 / 問 물을 문 문 / 仁 어질 인 인

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孔 구멍 공 공 / 曰 가로 왈 / 能 능할 능 능

行 다닐 행 행 / 五 다섯 오 오 / 者 놈 자 / 天 하늘 천 천

下 아래 하 하 / 爲 할 위 / 矣 어조사 의 / 請 청할 청 청

之 갈 지 / 恭 공손할 공 공 / 寬 너그러울 관 관 / 信 믿을 신 신

敏 민첩할 민 민 / 惠 은혜 혜 혜 / 則 곧 즉 / 不 아닐 불

侮 업신여길 모 모 / 得 얻을 득 득 / 眾 衆의 本字 중 / 人 사람 인

任 맡길 임 임 / 焉 어찌 언 언 / 有 있을 유 / 功 공 공 공

足 발 족 족 / 以 써 이 이 / 使 하여금 사 사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